

‘아름다운 샘’은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의 호(號)인 ‘가천(嘉泉)’의 순우리말입니다.

02 이모저모

이길여 가천대 길병원 설립자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02 이모저모

심장병 환자 맞춤 재활
심장호흡재활센터 개소

03 이모저모

그림 작품 ‘치유’ 기부한
백영민 작가 사연은!

05 유튜브 들여다보기

당뇨와 췌장암의 연결고리
소화기내과 강화평 교수



이길여 총장(가천대 길병원 설립자), 한국능률협회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 의료와 교육혁신, 의과학 발전, 사회적 약자 위한 봉사와 나눔 실천 공로

가천대 길병원의 설립자인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하는 제54회 ‘한국의 경영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총장은 가천대 길병원, 가천대학교를 비롯한 가천길재단을 운영하며 대학혁신과 의과학 발전, 봉사와 애국을 실천한 공로로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심장호흡재활센터 개소 심장병 치료에 필요한 맞춤형 운동 처방

가천대 길병원은 심혈관질환 환자의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심장호흡재활센터를 최근 심뇌혈관센터 8층에 개소했습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호흡재활 치료는 물론, 심혈관질환 환자들을 위한 전문적인 재활치료도 새롭게 시행되면서 환자들의 건강한 일상복귀를 돕습니다.

관련 내용 02면



www.gilhospital.com 진료예약·문의 1577-2299

등록일 2008년 7월 29일 | 등록번호 남동 라 00014 | 발행인 이태훈 | 편집위원 가천대 길병원 홍보실
디자인 (주)케이커뮤니케이션즈

일평생 의료와 교육 혁신 기여 공로 **한국의 경영자상** 수상한 가천대 길병원 설립자 이길여 가천대 총장



한국능률협회는 1969년부터 국내를 대표하는 학계, 산업계, 경제단체, 연구기관이 참여, 공정한 심사를 통해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부문으로 나누어 ‘한국의 경영자상’을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이길여 총장과 함께 김웅기 글로벌세아그룹 회장, 전장열 금강공업그룹 회장, 조용준 동구바이오제약 부회장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5월 2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됐다.

이 총장은 1958년 인천에 이길여산부인과를 개원한 이래, 여의사 최초 비영리 의료법인 설립, 국내 최초 초음파기기 도입, 병원 전산화, 닥터헬기 및 권역외상센터 운영, 인공지능 왓슨도입 등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며 병원경영을 혁신**했다. 아울러 보듬금 없는 병원, 자궁암 무료검진, 무의촌 의료봉사, 의료 취약지 병원 운영, 해외 심장병 환자 초청 무료수술 등 꾸준한 봉사를 실천해 온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총장은 가천의대 설립, 재단 내 4개 대학 통합, 국내최초 반도체 대학과 AI학과 신설 등 혁신을 통한 대학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가천뇌과학연구원, 이길여암·당뇨연구원, 가천바이오나노연구원 운영 및 국가지정 연구중심병원 TOP3 선정 등 의과학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총장은 수상소감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못 받고 죽어가는 것을 보며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학도병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남학생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못했다. 그들의 뒤통까지 다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평생 소외된 환자를 돌보고, 좋은 인재를 키우며, 기초의학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장호흡재활센터, 심장질환 시술/수술 치료 후 환자 운동능력 전문적으로 평가해 맞춤 재활치료



심장재활치료는 심장병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환자를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치료**다. 급성관상동맥질환(급성 심근경색, 불안정 협심증, 관상동맥중재술 및 스텐트 삽입 시술 환자)이나 심부전, 심장이식 수술 대기 환자, 관상동맥우회술, 판막 및 좌심실 보조장치, 심장이식 등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나, 심장 치료와 병행해 운동능력 등에서의 재활이 필요한 환자들이 대상이다.

가천대 길병원 심장호흡재활센터는 재활의학과 유명은 교수를 중심으로 물리치료사, 간호사가 한 팀이 돼 환자에게 맞춤형 처방을 시행한다. 환자의 심폐지구력 및 1RM(한 번에 최대 노력으로 중량의 저항에 대항해 발휘할 수 있는 근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시행하고, 러닝머신, 고정식 자전거 등의 유산소 운동, 유연성·근력운동 치료를 시행한다. 운동 중에는 카디악 텔레메트리(Cardiac Telemetry)를 이용해 환자의 심전도, 심박수, 산소포화도 등을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확인해 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심혈관 사고를 예방한다.

심장재활은 환자의 급성기 치료 등이 시행되고 심혈관 생명징후가 안정돼 흉통, 심근 효소치 등이 안정화 되는대로 가능한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좋다. 입원 기간 중 모니터링 운동을 경험하고, 퇴원 후에도 10일 이내에 재활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호흡재활 또한 다양한 기법과 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운동능력치를 정확히 판단하고, 치료를 통해 환

자들이 일상에서 안정적인 호흡을 유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시행된다.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신경근육계질환, 척수 손상, 폐암으로 인한 폐엽절제술을 받은 환자들이 호흡재활 치료 대상이다. 최대호흡기압, 최대호기압, 폐활량, 최대주입용량, 최대기침유량 등 호흡기능평가, 산소포화도 및 이산화탄소 분압, 이 밖에 호흡곤란 지수 등을 평가하고 결과 따라 유산소, 근력, 유연성 운동 및 호흡재활 훈련을 시행한다.

유명은 교수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은 만성질환이지만 급성기 형태로 환자들이 경험하는 사례가 많아 질환을 앓고 나면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운동 등 일상복귀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며 “막막하고 불안해하기보다 심장호흡재활센터 등 전문치료센터에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재활을 시작한다면 건강하게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말했다.

가천대 길병원에서 치료 받은 백영민 작가, 그림 기부로 감사 전해... “다른 환자에 희망과 위로 주고파”



가천대 길병원에서 수술 치료를 받은 백영민 작가가 의료진과 환자들을 위한 작품을 기증했다. ‘치유(Fall in Healing)’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작가가 2022년 개인전에 전시했던 작품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에게 마음의 위로를 전하고 싶은 작가의 마음을 담았다. 척추 질환으로 그림을 그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낸 백 작가는 올해 3월 척추센터 안용 교수 등 의료진의 치료로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다. 백 작가는 퇴원 하면서 ‘가천대 길병원 설립자인 존경하는 이길여 총장께’로 시작하는 편지를 남겼다. 백 작가는 편지에서 “훌륭한 의료시스템 덕분에 수술을 성공적으로 잘 받게 돼 감사한 마음으로 작품을 기증하고 싶다”고 밝혔다. 작품 ‘치유’는 초록의 싱그러움이 안정감과 편안함을 주는 작품이다.



가천대 길병원, 1200번째 협력병원 체결식
미추홀구 저스트병원과 진료 협력 (4/26)

1000여 인천지역 협력병원 포함 전국 병원과 협력



인천지역암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팀,
제15회 통증 캠페인 개최 (5/22)

암성통증 조절 위한 올바른 지식 전달



인천시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 사업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 출정식 개최 (5/27)

현지 진료 후 심장병 어린이 초청 치료 계획



공공보건의료사업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발전 논의

원외 실무협의체 개최... 25개 기관 39명 참석



공공의료본부-인천해양경찰서-인천의료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간담회 (5/14)

해상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 절차 등 협력 논의



이금숙 간호본부장
보건の日 기념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로 보건향상 기여



김민경 수석간호사,
근로자의 날 기념 국무총리상 수상 (4/30)

가천대 길병원 근로자 대표 역할 충실 공로



심장내과 위진 교수, 한일중환자의학회
우수 초록상 수상

심장성 쇼크 예측인자 규명 연구



가정의학과 최수정 교수, 남동구보건소에서
성인예방접종 주제 강연 (5/9)

찾아가는 건강강좌로 주민들에 건강정보 제공

나를 잃어버리는 병
기대

MBN

2019. 11. 17. 19:00

은 가족 건강 고민엔
특급 처방전

물어보세요

KB

서희선 교수

가천대 의대 가정의학과

Dr. Yoon-Young Kim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Chemistr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he received her B.S. and M.S. degree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her Ph.D.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She completed her postdoctoral fellowship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and then joined the faculty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03. Her research interests are in the synthesis of functional polymers and their applications in materials science.

김성연
내과
내과
내과
내과



유튜브 [길병원TV] 핫클립



영상 바로보기

당뇨병과 췌장암의 연결고리 혈당이 암의 신호일까?



당뇨병 환자는 당뇨병이 없는 분들에 비해 췌장암의 발생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0~20년 이상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당뇨병 환자가 갑자기 혈당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면, 췌장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췌장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당뇨병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암과 당뇨병의 상관관계를 소화기내과 강화평 교수가 설명합니다.

😊 소화기내과 강화평 교수

- ▶ 진료분야 : 췌장, 담도 질환
- ▶ 약력 : 대한췌장담도학회 평생회원
대한소화기암연구학회 평생회원



영상 바로보기

드라마 속 '뇌종양' 치료, 실제로는 어떨까 뇌하수체 종양의 수술과 치료



뇌하수체 종양은 뇌에서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부위에 양성 종양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뇌하수체 종양은 눈의 초점이 잘 안 맞거나, 양쪽 눈의 바깥쪽 시야가 좁아지는 등 시력장애로 착각해서 안과 검사 후 진단받기도 합니다. 뇌하수체 종양을 치료하는 방법 중 수술은 약 95% 이상 콧속으로 내시경을 넣어 종양을 제거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경외과 신동원 교수가 환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 신경외과 신동원 교수

- ▶ 진료분야 : 뇌종양, 두개저질환, 내시경수술, 두부외상
- ▶ 약력 :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학술대회 학술상 수상
대한내시경뇌수술학회 정회원

더 많은 의학정보를 알고 싶다면? YouTube **길병원TV** 를 검색하세요!

고객의 소리



심장혈관흉부외과 박철현 교수

제 생명의 은인 박철현 교수님 고맙습니다. 지난 2월에 관상동맥우회수술을 받았습니다. 21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는데 회진 때 항상 희망을 주시고, 운동 열심히 하라고 챙겨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외래에서 만날 때면 가족을 대하듯이 편안함을 주셔서 몸은 아프지만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삽니다.

김OO님



외상외과 최강국 교수

제 남편은 지난 2월 새벽에 큰 교통사고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최 교수님의 지휘 하에 신속하게 수술을 받았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면서 다급한 순간을 여러차례 맞았습니다. 19일 동안 중환자실에 머물다가 일반병실로 옮길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교수님, 지금은 36일만에 퇴원해 재활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김OO님



혈액내과 김혁 교수

지난해 6월 급성백혈병을 진단받고 상심의 날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긍정의 힘으로 용기를 내었고, 치료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골수이식 후 후유증과 부작용으로 생사를 넘나들 때, 교수님도 힘드셨을 텐데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도 검사하러 갈 때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힘든 시간을 뒤로 하고 병원문을 나서는 지금,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정OO님 보호자



인공지능병동 김소정 간호사

김 간호사님은 환자들에게 정말 친절합니다. 입원하면서 보니 환자들이 질문도 많은데, 귀찮은 내색 없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고, 불편한건 없는지 미리미리 신경써 주시네요. 퇴원할 때까지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감사했습니다. 웃는 얼굴이 특히나 예쁜 김 간호사님 많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최OO님



인공지능병동 김영주 간호사

수술 받고 난 후 몸이 많이 지쳐있었는데 김영주 간호사가 밝고 씩씩하고 친절하게 해주셔서 그 기운으로 입원기간 동안 잘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밤낮을 바꾸는 교대근무로 힘들텐데도 항상 밝은 모습으로 환자들 대해주는 김 간호사님 감사드리고, 카리스마도 아주 멋지고 미인이세요!

정OO님



응급의료센터병동 한미희 간호사

환자의 보호자로서, 환자를 간호하는 한 간호사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친절하고 자상하고, 가족이 아니면 쉽게 할 수 없는 일까지 서슴없이 해주시고 환자와 보호자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를 위해서 늘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OO님

친절 우수 직원

2024년 4월 3주차~5월 3주차

부서 I C5BW, C6AW, C9BW, A108W, A88W, I116W, I126W, I136W, 분만실, 소화기내시경실, 심혈관낮병동, 정신건강의학과외래, 통원치료센터

진료부 I 마취통증의학과 조누리 비뇨의학과 김광택 산부인과 김석영 신경외과 박윤관, 이기택 심장내과 박예민, 최성화 심장혈관흉부외과 박철현 외과 김윤영, 이원석 외상외과 최강국 이비인후과 김동영, 박우리, 차흥억 정신건강의학과 강승걸, 나경세 정형외과 심재양 종양내과 김영생 혈액내과 김혁

간호본부 I 수술간호팀 손가희, 최경진 외래간호1팀 문상희, 유예빈, 이유나 외래간호2팀 김민정, 김혜영, 박향숙, 이신혜, 최상기, 황지선 입원간호1팀 김해경, 박근휘, 박정은, 박주희, 정유리, 정희현, 허희향 입원간호2팀 김가현, 김다혜, 김민정, 김소정, 김숙한, 김영주, 김유리, 김은지, 김현정, 김혜진, 나지웅, 문승원, 서여정, 서지희, 안명희, 안은지, 오완택, 오은진, 유해연, 이유정, 장명자, 정환영, 조선영, 최은진, 한미희 입원간호3팀 김승연, 김은선, 민서원, 박인미, 박준우, 배호민, 서혜영, 유정민, 유지현, 이송자, 이지원, 이채은, 정혜경 특수간호팀 이해영 중환자간호팀 김한솔 심혈관낮병동 장임재(NA) 이비인후과외래 박자현 통증센터외래 박연진

진료지원 I VIP검진센터 박선주

행정 I 재난방재팀 김정훈(이송), 이진표(보안), 원연옥(미화) 원무팀 김라인, 이예원

가천대학교, 제85회 개교기념식 개최 이길여 총장, “끊임없는 혁신으로 글로벌 Only One 대학 열매 맺자”

가천대학교가 5월 8일 대학 가천관에서 이길여 총장과 최미리 수석부총장, 교직원 및 학생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5회 개교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국내외 학술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하고 후학 양성에 이바지한 공로로 반도체·전자공학부 유호천 교수를 비롯해 12명이 가천학술상을, 화공생명배터리공학부 박찬호 교수를 비롯해 73명이 우수교육자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학과 유재언 교수 등 18명이 총장 특별상을 수상했다. 한의예과 황귀서 교수를 비롯해 79명의 교직원에게 근속상을, 10개 취업률 우수학과 및 13명의 현장 실습 우수교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외 행정부서평가 우수부서와 모범직원 등을 선정해 포상했다. 이길여 총장은 축사에서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는 실험과 도전에 망설이지 않았고,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에 두려움이나, 주저함이 없었다. 국내 최초의 창업대학(스타트업 칼리지)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배터리, 시스템반도체 등 첨단학과들을 선도적으로 만들었고, 반도체 단과대학도 세웠다”며 “하늘 높이 오른 비행기에 가장 위험한 일은 속도를 잃는 실속(失速)이다. 우리는 천신만고 끝에 비행 고



도에 진입했으며 끊임없는 개혁과 혁신에 박차를 가하여 가천대학교를 국내 10대 사학을 넘어 ‘글로벌 Only One 대학’으로 열매 맺도록 더욱 분발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개교기념일을 맞아 종합운동장에서는 12시부터 ‘한마음 워터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번 축제는 가천

대 재학생들이 참여해 EDM(전자댄스뮤직) 파티와 함께 물풍선, 물총 등을 이용해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워터페스티벌 물총놀이를 즐겼다. 오후 4시부터는 인기가수 싸이, 화사(마마무), 창모, 다니엘지칼, 안신애, 최예나(아이즈원) 등을 초청해 축하 공연을 펼쳐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가천대학교, ‘가천제자사랑 더하기 장학금’ 전달 교수들이 모금한 장학금 1억2천여만원 전달

2022년 부터 총 7억여원 모금, 장학금 및 ‘천원의 소식’에 활용



가천대학교 교수들이 2년 여 동안 모은 장학금을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학생들에게 전달했다. 가천대 교수와 직원들은 학생들이 학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자발적으로 장학기금을 모아 지금까지 총 7억여 원을 조성했다. 조성된 기금은 작년부터 장학금과 학생들의 아침식사 ‘천원의 소식’ 지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천대

는 스승의 날을 전후로 단과대학, 학과별 전달식을 가지며 이를 대표해 5월 14일 가천관 계단강의실에서 김완희 경영대학장이 경영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가천제자사랑 더하기’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올해 지급되는 장학금은 총 1억2천2백45만원으로 학과별로 학과생활 및 성적우수자 등 총 3백여 명에게 지원된다. 이길여 총장은 “제자사랑의 마음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든든한 아침식사를 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훌륭하게 성장해 후배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천대 최정현 교수팀, 차세대 건식 극판 기술 활용 탄소배출 없는 고에너지밀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개발 성공



최정현 교수



김주현 교수

가천대학교 화공생명·배터리공학부 최정현교수 연구팀이 탄소중립형 차세대 건식 극판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밀도가 높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차세대 건식 극판 공정 기술을 도

입해, 저렴하고 안정성은 높지만 낮은 에너지 밀도와 높은 이온 및 전하전달 저항의 문제를 갖고 있는 리튬인산철 전지의 단점을 극복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유기용매는 독성이 매우 강하고 건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1kWh 당 42kg으로, 배터리 제조 공정에 대한 혁신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전극 제조 과정에서 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건식공정이 차세대 전극 공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장점을 갖고 있는 건식공정을 리튬인산철 양극 제작에 도입해 리튬 이차 전지의 에너지 밀도를 대폭 향상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 연구는 논문명 ‘건식 전극 기술로 제조된 고에너지밀도 리튬이온 배터리용 저저항 리튬인산철 후막 전극(Low-Resistance LiFePO₄ Thick Film Electrode Processed with Dry Electrode Technology for High-Energy-Density Lithium-Ion Batteries)’으로 재료화학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인 ‘Small Science (IF: 12.7)’ 5월호에 게재, 표지 논문으로 선정됐다.

중앙일보

The JoongAng Plus | Leader & Reader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중앙일보

이길여 집 마당에 의료사교육관 짓는 이유



'청춘 이길여' 기획 연재 시리즈

92세의 나이에 '우주 최강'이라는 '비현실적 동안' 이길여 가천대 총장의 건강 비결과 교육 철학을 들어보시죠. '젊은 노년' 웰에이징의 비밀, 국내 대표 여성 지도자의 성장 스토리, 따뜻한 카리스마 리더십을 조명합니다.



청춘이길여 페이지 바로가기

'청춘' 총장의 마지막 꿈

완공되면 집까지 모두 기증 계획
“저에겐 물려줄 자식도 없잖아요
떠날 땐 후세에 주고 가야죠”



① 캠퍼스를 돌아다니는 소형 전기버스 '무당이'. 오르막길을 다니는 학생들을 위해 도입했다. ② 가천문화재단이 이길여 총장 자택 마당에 짓고 있는 가천의료사교육관. ③ 가천대역 비전타워 직통로 분수광장에 걸린 '학생이 왕이다' 현수막.

[사진 가천대 가천대, 남윤서 기자]

최미리 수석부총장은 “총장은 평소 생활은 검소한데 수십·수백억원이 드는 일은 무섭게 빨리 결정할 때가 있다. ‘학생에게 도움이 되나’는 것만 생각하니 결정이 쉬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훈 길병원 의료원장은 “누구든 ‘총장이 나를 제일 신임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 나를 가장 믿어준다고 생각하니 신이 나서 일하게 되고 더 잘 보이고 싶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장은 “총장이 호감을 얻는 건 특유의 리액션 때문”이라며 “좀 허황된 아이디어에도 ‘너무 좋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고, 어떻게든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주려고 한다”고 소개했다. 이 총

장에게 이런 인간적 매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물었더니 “먼저 애정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학생이든, 직원이든 ‘먼저 준다’가 그의 소통 비결이다. 남에게 먼저 준다는 것이 그의 젊음의 원동력인지도 모른다.

김우경 길병원장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저렇게 건강할 수 있겠는가. 늘 환자와 학생을 우선에 두니 따르는 사람이 많아 행복하고, 호르몬 체계도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의사의 꿈을 쫓을 때부터 그의 삶은 봉사와 맞물려 있었다. 의사 얼굴도 보기 어려웠던 시절, 학교 갈 나이가 되기도 전에 죽는 친구들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겠다’고 생각한 그였다. 미국 유학을 갔다가 전쟁 기간 또래 청년들에게 진 마음의 빛을 갚기 위해 귀국했던 일이나, 가난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보증금 없는 병원을 만든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난한 환자들은 의료 기록에 미리 X표를 해 두고 모르는 척 진료비를 받지 않았다. 의료 취약지인 백령도에 백령길병원을 열고 적자 속에서 운영하기도 했다.

송진구 가천대 교수는 “자꾸 돈이 안되는 일만 벌이는 경영자한테도 왜 성공하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그가 찾아낸 비결은 ‘남을 도와주려면 매 순간 열심히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일이 원하는 대로 이뤄진다’는 것이었다.

이 총장은 마지막까지 남에게 줄 예정이다. 인천 옥련동에는 고서와 의료사자료 등이 보관된 가천박물관이 있다. 이 총장의 자택은 그 박물관 바로 옆에 있다. 자택 마당에는 가천의료사교육관을 짓는 공사가 한창이다. 완공되면 박물관은 물론 집까지 모두 기증할 계획이다. “전 물려줄 자식도 없잖아요. 사는 동안은 환자와 학생에게, 떠날 땐 후세에 아낌없이 주고 가야죠.”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지하철 가천대역 비전타워 직통로 분수광장에는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빨간 현수막이 걸려있다. “학생이 왕이다.” 식당에 종종 붙어있던 ‘손님이 왕이다’가 떠오르는 문구다.

왜 이런 현수막을 걸어냈는지를 이길여 (92) 가천대 총장에게 물었다. 이 총장은 “학교는 왕으로 모실 테니 너희는 왕답게 리더가 되라는 의미를 전하고 싶었다”며 “조금 오버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학생이 어려서부터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게 해주고 싶다”고 답했다.

이 총장에게 비결을 묻자 “사랑을 주니까”란 답이 돌아왔다. 대학을 처음 인수했을 때부터였다. 1998년 경원대를 인수한 그는 낡은 책걸상부터 바꿨다. 의

자 수십 개를 늘어놓은 뒤 학생들이 직접 앉아보고 투표하게 했다. 이 총장은 “스스로 왕이란 생각이 들려면 책상, 의자부터 좋아야 하지 않겠느냐. 비싸도 아끼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캠퍼스 내에는 무당벌레 모양의 소형 전기버스 ‘무당이’가 돌아다닌다. 이 역시 이 총장이 “학생들이 오르막길 오르는 게 안쓰러워서” 만든 것이다. 2012년에는 하와이에 글로벌센터도 만들었다. 당시 하와이를 방문한 이 총장은 해변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중국 학생들을 보고 ‘우리 학생들도 오게 해 주고 싶다’ 생각했다. 곧바로 2주간 발품을 판 끝에 오래된 호텔 건물을 사고 1년 만에 리노베이션까지 마쳤다.